

기생충



아카데미 효과... 전 세계가 '기생충' 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관왕을 거머쥐면서 국내외에서 '아카데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상영이 끝난 '기생충'이 다시 관객들을 만나며, 봉감독의 각본집도 판매가 늘었다. 또 해외 상영권도 대폭 확대되는 등 기생충 붐이 일고 있다.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은 25일까지 '기생충 특별전'을 연다. 롯데시네마 광주점(롯데백화점)과 CGV 광주터미널점, 메가박스 점점점 등은 기생충을 다시 상영하며 특별전 기간 동안 할인된 가격(7000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기생충' 흑백판도 오는 26일 국내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흑백판은 지난 1월 22일 개막한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후 31일부터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관객들을 만난 특별 버전이다. 봉준호 감독과 흥경표 촬영감독은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콘트라스트(대조)와 톤을 조절하는 작업을 거쳐 흑백 버전으로 탄생시켰다. 두 사람은 봉 감독의 또 다른 작품인 '마더' 흑백 버전 작업도 진행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상영권이 대폭 늘어난다. '기생충' 북미 배급사 네온은 상영권 수를 현재 1060개에서 이번 주말 2000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기생충'은 현재까지 북미에서 3553만 달러(421억원)의 티켓 수입을 거뒀다. 이는 역대 북미에서 선보인 모든 비영어 영화 가운데 6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5위는 2006년 개봉한 '판의 미로-오피리아와 세 개의 열쇠' (3760만달러)로 조만간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흥행 1위는 이안 감독의 '와호장룡', 2위는 로베르티 베니니 '인생은 아름다워', 3위는 장에모 감독의 '영웅', 4위는 멕시코 유진니오 텔베즈 감독의 '사랑해, 매기'다.

일부 박스오피스 전문가들은 '기생충'이 이미 DVD로 출시됐을 때도 최종 4500만~5000만 달러(592억원)의 티켓 수입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으면 북미 박스오피스 매출은 20% 안팎으로 된다. 지난해 '그린북'은 작품상 수상 이후 매출이 18%(1500만달러)가량 늘었다. 2012년 '아티스트'는 29%, 2017년 '문라이트'는 20.2% 각각 뛰었다.

특히 미국 언론이 '기생충' 오스카 석권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

25일까지 할인 재개봉·26일 흑백판 개봉
해외상영권 대폭 확대...스토리북 판매 급증
'짜파구리' 조리법 영상 조회수 66만건 인기



짜파구리

도하면서 영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이번 주말 많은 관객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역시 상영권을 확대한다. '기생충'은 지난 7일 영국 136개 스크린에 올라 3일간 139만 파운드(21억4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며 영국 역사상 비영어권 영화 오프닝 흥행 1위의 기록을 세웠다. 영국 배급사 커존은 오스카 수상에 힘입어 상영권을 400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는 멜 깁슨 감독의 '아포칼립토' (2006·마야어 영화)의 상영권 385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영국에서 비영어권 영화 역사상 최대 규모로 상영되는 것이다.

'기생충'은 유럽과 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중동까지 202개국에 팔려 한국 영화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고 한국과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총 67개국에서 개봉됐다.

봉 감독이 직접 쓴 각본과 직접 구성한 스토리보드, 봉 감독의 창작 과정과 영화 세계를 묻는 인터뷰가 담겨있는 '기생충 각본집 & 스토리북 세트'도 불타나듯 팔리고 있다.



25일까지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등 영화관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기생충'.

에스24에 따르면 수상 소식이 전해진 10일 이 세트는 1110권이 팔려 단숨에 종합 베스트셀러 10위에 진입했다. 전날과 비교하면 약 26배나 판매량이 늘었다. 알라딘에서도 전날 오전 10시 30분 이후 판매량이 급증해 6시간 동안 350권이 팔려 전일 대비 23배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보문고에서도 전날 5시까지 평소의 35배 수준인 350권이 판매됐다.

출판 유통업체는 이 세트를 포함한 아카데미상 관련 도서 구매 고객에게 '기생충 사인 포스터', '기생충 소주잔' 등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열 예정이다.

영화 속 '짜파구리'도 재조명 받고 있다. '짜파구리'는 농심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어 조리한 것으로 빈부격차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요리로 다뤄졌다. '람동(ramdon·ramen+udon)'은 영화 영어자막에 등장한 짜파구리에 대한 번역이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선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잘 모르다 보니 라면과 우동을 합친 음식으로 표현했다.

농심은 이번 수상으로 짜파구리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사 유튜브 채널에 짜파구리 조리법을 11개 언어로 소개하는 영상을 게재했고 미국 해외 요리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에도 기생충식 짜파구리 만드는 방법이 여럿 올라왔다. 미국의 요리 평론잡지 '차우하운드' 편집장 하나 에스브링크는 온라인사이트에 영화속 짜파구리를 소개하며, 만드는 과정을 공개했다.

외국인 시청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 망치(Maangchi)도 '기생충'에 나오는 쇠고기 짜파구리(ramdong·람동)라는 영상을 통해 조리법을 소개했다. 해당 영상 조회수는 66만에 달한다.

이와 함께 영화의 상당 부분을 촬영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도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사장(이선군 분)의 집 장면과 최후의 접전이 벌어지는 거든파티 장면, 기우·기정 남매(최우식·박소담 분)의 PC방 장면 등 전체 촬영의 60% 이상이 이곳에서 진행됐다.

/전재재 기자 ej621@kwangju.co.kr

AP

'빛이 남긴 감정-AP사진전'

3월 1일까지 김대중센터



안자 니에드린하우스 작 '경찰에게 손을 내미는 어린이' (2012)



버넷 아르만구 작 '보랏빛으로 물든 맨발의 미망인' (2015)



조 로렌탈 작 '이오지마에 세운 깃발' (1945)

AP통신은 UPI, 로이터, AFP 등과 함께 세계 4대 통신사 중 하나로 꼽힌다. 지금도 매일 2000개, 연간 100만개의 AP 사진이 세계의 톱 뉴스를 장식한다. 1848년 뉴욕의 6개 신문사가 입학하는 선박으로부터 유럽 지역 뉴스를 공동취재하기 위해 설립한 항구조합(harbor association)에서 출발한 AP통신은 격동하는 세계사를 영글어 담아왔다.

'빛이 남긴 감정-AP사진전'이 오는 3월 1일까지 김대중센터 열린홀에서 열린다. '빛의 기억, 찰나의 역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AP통신사 사진작품 중 대표작 20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작은 사진 속에 스민 감정, 온도, 기억에 주목했다.

이번 사진전은 총 5개의 테마로 진행된다. '빛이 남긴 감정'에선 카메라가 따라간 하루의 시간을 보여준다. 시간대별로 배치된 사진 속에서 새벽부터 아침, 정오, 밤에 일어난 수많은 순간들을 다채로운 영글로 만날 수 있다. '빛의 온도'는 사소하고 소소한 일

사진 속에 스민 감정·온도·기억...

상의 작은 순간을 포착해낸 작품이 전시된 섹션이다.

'빛의 기억'은 카메라가 포착한 역사와 문화 현장을 담은 사진이 전시된 섹션으로 관람객들이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 흑인인 권운동, 세계의 페스티벌, 1960년대 뉴욕문화, 나사와 소련의 우

주전쟁과 함께 비틀즈, 무하마드 알리, 에디트피아프, 마릴린 로, 프레디 머큐리 등 슈퍼스타들을 만날 수 있다.

'찰나의 역사'는 역사의 흐름을 바꾼 작품들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폴처치 수상작품을 비롯해 베트남전쟁과 한국전, 반전운동,

난민 현장까지 보도사진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다. 또 특별전으로는 '북한전-우리가 다시 만난다면'전을 선보이고 있다. 북한의 놀이공원, 거리풍경 등 일상의 모습과 함께 김일성 주석 탄생 기념식 모습 등도 만날 수 있다.

전시장에는 직접 사진작가가 되어볼 수 있는 코너 등 다채로운 포토존이 마련돼 있으며 전시장내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인증하면 연극 '한뼌 사이' 초대권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